

테마칼럼

남도의 재발견

도시와 삶

건강과 생활

교육을 생각한다

교육문제는 신뢰 회복이 관건이다



김왕복

구성원 간의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학교 단위 책임경영과 내신 성적에 우선적인 신뢰를 보내고 비리가 발생할 경우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 교육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제도라도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한 게임을 하지 않으면 실패하고 만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입학사정관제 문제, 자율형 사립고 입시 부정 문제, 학교생활기록부에 외부 수상 기록 기재 금지 등은 선생님을 비롯한 교육구성원들의 신뢰와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들이다.

우리나라의 교육 문제는 고질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고 교육정책과 제도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요소들과 연결된 복합적 문제들이다. 교육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환경들과 교육 이해관계인들의 의식과 수준은 그대로인데 교육제도만을 고친다고 해서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교육문제는 고차원 방정식만큼이나 풀기가 어렵다. 고교평준화제도, 대입자율화 등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거운 것은 우선 교육정책의 진보나, 보수나 하는 문제에서 출발한다. 여기에 학부모와 학생들이 소득 수준, 학교 성적, 신체조건 등에 따라 서로 입장을 달리하기 때문에 교육문제는 더욱더 난해하다.

우리는 이제까지 거의 모든 종류의 정책들을 시험해 봤다. 보수정책도 해봤고 진보정책도 해봤다. 이런 모든 정책들이 교육을 담당하는 중앙부처 수준에서 입안되고 일선학교에 실행이 강제되었으나 그 효과성에 대해서 여전히 논란이 많다.

이제 방향 전환을 하여야 한다. 우선 선생님들이 신뢰를 회복해야하고 학교장 중심의 단위

학교 자율 경영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선생님들에게 전적인 학생 평가권을 일임하고 내신 성적을 최우선 대입전형자료로 하는데서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 선생님들이 매긴 평가에 대해서는 교육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야 공교육이 정상화된다.

현 상황은 학교에서의 성적 부풀리기와 변별력 문제로 대학이 내신을 불신하고 학부모들은 치맛바람을 동원하여 선생님들을 괴롭히며 선생님들은 이쪽저쪽 눈치만 보면서 몸보신 하기에 바쁘다. 그리고 교육당국은 이해관계자들이 큰 목소리 낼 때마다 임시방편의 교육정책과 규제들을 쏟아낸다. 이러서는 공교육 정상화는 요원하다.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들도 최우선 전형자료로 학교 내신 성적을 중요시한다. 전교 1등 1천500명이 하버드 대학에서 낙방했다는 얘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각 지역에서 최우수 학생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지 결코 내신을 경시한 결과가 아니다. 오히려 일부 대학에서는 한국의 수능시험에 해당하는 SAT가 학업성취도와 연관성이 적다고 하여 참고만 한다고 한다.

그 배경에는 한국 유학생들이 원인 제공하였다는 이야기도 있다. 한국 학생들은 SAT나 TOEFL 점수는 뛰어난데 중도탈락자가 많다는 분석이다. 미국 대학들은 입학생활의 고교 내신 성적과 입학 후의 학업 성취도를 면밀히 비교 연구하여 그 결과를 축적해 나간다. 만약 어느

고교 졸업생이 내신 부풀리기 등으로 합격을 했으나 학업성취도가 낮으면 그 학교 졸업생은 다음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그래도 아무런 이의가 없다. 모든 교육 관계자들이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신뢰사회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이자 G20 의장국이다. 이제 신뢰사회 구축을 통해서 교육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학급당 학생 수가 많고 과잉행동장애아가 여러 명 있는 학급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선생님들로서는 억울하겠지만 우리사회에서 선생님들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것은 현실이다.

사회 지도층 인사들은 자기 자녀를 위해 표창을 부탁하는 행위, 또 그것을 코치하는 행위, 자녀들의 봉사 실적을 허위로 작성해 주는 행위, 무조건 칭찬 일색의 추천서를 작성하거나 학생 성적을 올려달라고 요청하는 행위 등을 하지 말자. 그 대신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 선생님들이 자율과 창의 정신으로 교육과 평가를 하도록 믿어보자.

구성원들 간의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학교 단위 책임경영과 내신 성적에 우선적인 신뢰를 보내고 만약 비리가 발생할 경우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 교육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한다.

<국립신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중고칼럼

이영현



우리 인간은 지난 '사건'들을 상거하여 기념제를 거행함으로써 그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과의 관계도 새롭게 하곤 한다. 그래서 역사의 흐름 속에 그들의 '일'과 '정신' 역시 생생하게 되살아난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억과 기념제는 현재의 삶이 과거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도록 도와주는 실마리가 되고, 미래를 향해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바탕도 된다. 따라서 기억과 기념제는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고개를 숙여야만 하고, 그 유가족들과 수많은 부상자들의 고통에 동참하는 뜻으로 울금에 살아야만 한다. 이처럼 4·19 의거는 우리 민족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은 고통과 영광이 혼재된 기념비적인 사건이었고, 영원히 잊지 못할 사건이었다. 그래서 그 의미와 정신은 4·19 의거에 희생된 분들의 넋과 함께 보존 유지됨으로써 날로 승화되어야만 한다. 그런데도 정치야욕에 빠진 '철새들'이 국민들의 뜻과 바람을 외면한 채 부당한 신군부 독재세력과 야합함으로써 선량

기억과 기념제는 삶의 활력소여야 하는데

하고, 그 의미와 정신은 삶 안에 구체적으로 체현되어야 한다.

오는 4월 19일은 청순한 '봄나무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애국애족의 정신으로 뿔뿔 뭉쳐 함께 일어나 장기집권의 야욕과 부정부패의 늪에 빠진 정권을 무너뜨린 '민주혁명'이 이루어진지 50주년이 되는 뜻 깊은 날이다. 당시 정부와 집권당이 독선과 부정을 일삼고, 반공이란 미명 아래 온갖 기만과 불법을 자행함으로써 국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다. 특히 독재 독선의 전형적인 만행은 국민들을 날로 낙담시켜 참담하게 만들어 갔었다.

사실 4·19 의거는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불가피한 투쟁과 뼈저린 진통이었으나,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우리 민족 역사의 가슴 아픈 상흔이 되었다. 그래서 4·19 의거는 독재의 정치 횡포와 전횡을 마감시킨 승리의 사건임에는 분명하지만, 고통과 아픔이 내재되어 있기에 마냥 축하할 수만은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4·19 의거에 희생된 영령들 앞에 죄송스런 마음으로 엄숙히

한 국민들을 갈등과 분열의 도탄에 이르게 했고, 천인공노할 사건 '5·18 민주화운동'까지 야기했다. 아직도 현 정부와 여당은 국민들과의 소통을 아랑곳하지 않고 독선과 독단으로 밀어붙이려고만 하니, 4·19와 5·18의 숭고한 정신과 그 열은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오는 4월 19일에 거행되는 '50주년 기념행사'와 5월 18일에 거행될 '30주년 기념행사'가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로만 기억되지 말고 반민간의 민족정기를 되살리며, 특히 갈라진 남북관계의 슬픔과 고통을 달래고, 온 국민의 친교와 일치에 이르는 기폭제가 되었으면 한다. 또한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요한 12, 24)는 예수님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과연 우리 자신은 탐스런 열매로 맺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땅에 값진 씨앗으로 뿌려져 새싹이 움틀 수 있도록 하고 있는지 도 함께 자상하고 새롭게 다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빌어본다. <광주 치평동 성당 주임신부>

저출산시대 미혼모 지원책 제도 마련 시급

저출산 시대에 출산 여성에 대한 지원 다음 가장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미혼모 지원책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뒤늦게 대책을 내놓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미흡하다.

아기를 낳았는데 미혼모 신세가 되었다거나, 미혼모가 아기를 낳았을 경우 출산부터 학업을 계속해야 하는 부분까지 지원해주고 보살펴 주는 제도가 마련 되어야 한다.

서구에서는 정부가 미혼모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고 있고, 그로 인해 입양이 줄어들고 있다. 우리나라도 편견을 없애고 지원을 확대한다면 출산을 인정하고 입양은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산모들의 학업을 계속하게 해주는 방안도 중요하다. 하루 1천 명의 낙태를 막기 위해 아이들을 스스로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이름·광주시 남구 회장동

기고

이병열



대한민국 민주화 초석을 이룩한 4·19 민주혁명 50주년을 맞이하면서 광주 4·19혁명을 재조명한다. 광주는 불의에 항거한 3대 민주항쟁의 역사가 있다. 1929년 광주학생독립운동과 1960년 광주 4·19 민주혁명 1980년 5·18광주민중항쟁으로 광주는 정의가 살아 숨 쉬는 의로운 땅 의향의 고장이다. 민주화 수도임을 역사가 입증하고 있다.

광주 3대 민주항쟁의 역사는 애국애족의 광주정신의 산실이다. 의향문화의

4·19주역들의 간절한 바람은 광주 4·19역사를 기릴 수 있는 4·19기념탑, 4·19공원이 조성되기를 간구하고 있다. 관계기관의 정성어린 성원과 협조를 바란다.

광주 4·19혁명을 주도했던 주역들은 광주 4·19역사 바로 세우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자신들이 낸 성금을 모아 기금을 조성하여 역사 기념물과 사적지를 조성하여 4·19역사를 기리고 애국애족심을 고

민주화 수도 光州의 4·19

산실이며 민주성지 광주, 민주화도시 광주 등 광주 애정의 산실이다.

이제 다시 대한민국 민주발전의 초석인 4·19 민주혁명 50주년을 맞는다.

1960년 4·19 민주혁명은 대한민국 건국 이후 전국대도시에서 발생한 최초의 민주항쟁으로 처음부터 정권교체를 목적으로 한 투쟁이나 정치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체제 변혁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 또 어떤 정치주도세력이 개입된 것도 아니었다. 다만, 정의감에 불타는 학생들이 불의에 항거한 집단행동이었다.

70세의 나이가 된 4·19주역들은 세월이 더 가기 전에 4·19역사를 기리고 숭고한 혁명정신이 계승발전 될 수 있도록 역사 기념물이나 상징물이 하나라도 더 존재하기를 소망한다. 광주 4·19주역으로서 안타까운 것은 광주는 4·19민주혁명의 3대 진원지임에도 불구하고 민주화도시라고 애칭하는 광주에 4·19민주화역사를 기릴 수 있는 기념탑 하나 없는 곳이 민주성지라 불리는 광주의 민주화 역사관리 실태다.

광주시내 어느 곳을 가보아도 광주에 4·19역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역사 기념물이나 사적지가 눈에 띄지않고 역사의 흔적도 찾아 볼 수가 없음을 통탄스럽게까지 한다. 다만, 광주공원에 추모비 하나가 있을 뿐이다.

취, 민주성지 광주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광주 4·19주역들의 4·19역사 바로 세우기 사업실적으로는 광주 4·19혁명 최초발상지에 광주 4월 혁명 발상탑건립, 4·19 당시 현장사진을 각인한 와비 3기 건립, 광주 4·19혁명 그날 시비건립, 광주 4·19 최초발상도로로 4·19로 도로명부여, 광주 4·19 민주혁명 사적지기념탑 건립 등으로 4·19주역들의 소망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고 있다. 광주 4·19역사 바로 세우기 사업은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고취시키고 5·18 민주항쟁과 더불어 광주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있다.

불의에 항거한 광주 3대 민주항쟁의 역사문화가 조화를 이루어 민주화도시 광주의 정체성을 가진 랜드마크를 창안 설계하여 파리의 에펠탑, 호주 오페라 하우스와 같은 광주만의 랜드마크가 세워져야 한다. 광주 랜드마크는 광주정체성과 이미지를 전세계에 각인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며, 광주의 경쟁력 이요, 관광자원도 될 것이다.

광주랜드마크는 문화의 전당과 함께 광주경제발전에 에너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한다. 피와 죽음으로 민주화를 이룩한 4·19 영령들의 명복을 기원한다.

<광주 4·19혁명기념사업위원회장>

◇ 채택된 원고는 고료 드립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시설

천안함 인양... 투명한 원인규명 이뤄져야

두 동강나 침몰한 지 20일 만에 천안함의 함미(艦尾)가 인양됐다. 함미 선체는 오른쪽 절단면이 C자 형태로 거칠게 찢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그 안에서 산화되거나 숨진 실종 승조원에 대한 수색작업도 본격화됐다. 먼저 순직한 천안함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천안함의 함미가 인양됨으로써 그동안 온갖 의혹과 설이 난무했던 침몰원인과 경위가 보다 분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민·군합동조사단이 이날 함미가 탑재된 바지선에 현장 조사팀 38명을 투입해 본격적인 조사 활동에 돌입했다. 원인 규명작업이 본격화된 것이다.

침몰 원인규명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누가, 왜, 어떤 방법으로 천안함을 침몰시켰는지 꼭 밝혀내야 한다. 아무리 어렵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인규명에 조금의 허술함이나 의혹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그러기 위해서는 투

명하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가 전제되어야 한다. 민·군합동조사단은 투명한 원인규명 작업을 통해 또다시 무분별한 의혹이나 의혹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군 당국은 기밀유수선주의에 매달려 진상조사의 투명성을 해치는 일을 경계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완전한 원인규명이 이뤄질 때까지 선부분 예단이나 추측은 삼가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원인규명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극단적 주장과 선동이 난무할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지금으로선 침몰 원인규명을 위한 조사가 우선이다. 국민 모두가 민·군합동조사단이 사고 진상을 조속히 파악하도록 힘을 보태야 하는 이유다. 정부와 군도 무책임한 포퓰리즘에 휘둘리지 말고 차분하면서 합리적인 조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천안함 침몰 원인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그에 따른 단호하면서도 냉철한 대응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서민 위한 미소금융마저 수도권 편중인가

저소득·저신용자들의 자활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미소금융사업이 설립 목적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소금융사업은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들을 돕기 위해 삼성

미소금융마저 호남지역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지원 수가 적기 때문이다. 수도권에는 16곳의 지점이 개설되어 반면 호남권은 광주·전남을 통틀어 4곳에 불과하다.

과 현대·기아차 등 6대 대기업 출연금과 휴먼에듀 7천억원 등 향후 10년간 2조원 규모의 재원이 투입된다. 그러나 웃음과 희망을 줘야 할 미소금융이 재기를 꿈꾸며 기대감에 부풀었던 서민에게 또다시 실망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복잡한 대출 절차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창업 임차자금의 경우 까다로운 대출 심사로 대출받기 위해서는 3주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

무엇보다 대출금이 수도권 등 특정지역에 편중돼 있다. 지역별 대출 현황을 보면 수도권이 434건으로 전체의 59.0%, 대출금액은 32억5천만 원으로 60.7%를 차지했다. 영남도 134건(18.0%)에 7억 원(13.8%)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았다.

미소금융이 성공하려면 서민의 삶 속으로 다가가야 한다. 지방의 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장이나 저소득층이 밀집해 있는 곳에 과감히 지점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

반면 호남의 대출건수는 26건으로 전체의 3.5%에 불과했고, 대출금액도 1억8천500만 원으로 3.4%에 그쳤다. 미

물론 노력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는 일정한 대출기준 설정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대출금 회수에만 신경쓴다면 또 하나의 제도권 금융기관에 불과할 뿐이다. 위험을 감수하고 서민들을 돕자는 것이 미소금융이다. 한국형 서민금융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문호를 넓힐 필요가 있다.

無等鼓

악역이 더 이상 믿지 않다. 지난해 말 방영된 드라마 선덕여왕의 미실(고현정 분)이 그랬고 추노의 천지호(성동일 분)가 그랬다. 그리고 이번엔 문근영이 연기한 '신데렐라 언니'의 송은조다. 표독스러운 표정 연기에는 '국민여동생'의 이미지가 어디에도 없다. 회초리가 부러질 때까지 이를 악물고 버티는 그 독함에 몰서리가 처지면서도 시청자들은 어느새 은조에게 몰입하게 된다.

라는 코드를 친숙한 이미지로 시청자들에게 각인시킨다. 고현정은 강력한 카리스마와 표정연기로 '미실의 시대'를 만들었다. 성동일은 '빨간 앙팡'이라는 코믹한 캐릭터와는 상반된 추노편 천지호를 기본 나쁜 목소리와 능글능글함으로 표현해냈다. 극중 죽음에 이르러서는 시청자들의 눈물을 속 빼는 열연연독함에 몰서리가 처지면서도 시청자들은 어느새 은조에게 몰입하게 된다.

악역의 재발견



그렇다면 왜 시청자들은 이 새로운 악역 캐릭터에 열광하는가. 원래 드라마는 이야기의 재미에 빠져서 보는 것이 제 맛이다. 그렇기에 많은 이들은 하투에도 수없이 쏟아지는 남의 이야기에

돌아온 문근영은 몇 회 되지 않은 연기로 벌써 '은조편'을 만들고 있다. 모진 삶을 살아내면서 강할 수밖에 없었던 그녀가 차츰 사랑을 알아가며 변화하는 과정을 넘치는 연기로 풀어내고 있다. 그녀가 대학 생

마음을 빼앗겼곤 한다. 그러나 때문 이야기의 힘을 넘어서는 존재감에 보는 경우가 있다. 바로 배우의 힘이다. 요즘 인터넷에 떠도는 말로 '미친 존재감'이라는 말이 있다. 딱 이런 경우를 표현한 말이다. 드라마의 뻘한 관계 설정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들의 아우라가 악역이

활을 즐기며 연기를 오래 쉬었음에도 야기의 힘을 넘어서는 존재감에 보는 경우가 있다. 바로 배우의 힘이다. 요즘 인터넷에 떠도는 말로 '미친 존재감'이라는 말이 있다. 딱 이런 경우를 표현한 말이다. 드라마의 뻘한 관계 설정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들의 아우라가 악역이

광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淸
대표전화 222-8111
www.kwangju.co.kr